

1. 종교다원주의 배경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 1184호
10월 30일
2021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하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교총사무처
■ 문의
021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0, 서울 도-07857 주번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12677-9935~7 FAX : 0504027-0897

올바른 지도자 선출...평등법 막아야

전기총연합, 이사회 및 임원 모임 개최... 한미동맹 강화



임원회 목사
전기총연합 이사장

(사)전국7개교역시도26개 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이하 전기총연합)는 지난 10월 18일(월) 오후 부산 해운대 오리조트에서 이사회 및 임원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 대면예배 재정정과 대선을 앞두고 올바른 지도자 선출을 위해, 한미동맹관계 철저히 복원,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공산주의 타파 등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기독교의 주권을 확립할 것을 다짐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신자영 목사(예수교총회장, 경북기독교회장)의 사회로 박종호 목사(성남기독교회장)의 기도, 이우택 목사(울산기독교회장)의 성경봉독, 정성훈 목사(임원이사, 동대문교회 담임)의 설교 등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갈 6:1-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우리가 내린 대선을 앞두고 영혼의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교회가 연합한 권력을 통해 얻은 반기독교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우리 서로가 힘을 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라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며 발한 귀담시들을 촉구했다.

이어 신자영 목사(서울기독교)가 나라의 안정을 위해, 박종호 목사(경기도)가 '한국교회'를 위해, 최문수 목사(부산기독교)가 '한국교회'를 위해,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하고, 강인철 목사(부산기독교)가



전날(17)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이사회 및 임원회

의 광고, 박종호 목사(대전기독교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끝으로 이어진 이사 연설회에서는 신자영 이사장(전국기독교총연합회)의 사회로 박종호 목사(성남기독교회장)의 기도, 이우택 목사(울산기독교회장)의 성경봉독, 정성훈 목사(임원이사, 동대문교회 담임)의 설교 등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인사말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뿐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 모였다. 우리들이 함께 뜻을 모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존중받는 신앙의 자유로 지킬 수 있음을 분명히 기원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정책상을 갖고 기원할 것을 강조했다.

정 목사는 또 "많은 보수단체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지도를 요청해 오고 있다"며 "기독교를 중심으로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들을 세우며,

악법을 저지하고, 헌정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애쓰는 이들을 적극 후원해야 한다"고 했다.

모임 취지를 설명한 김철민 목사(대전기독교회장)는 "조국과 나라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교회와 성경과 하나님 중심으로 잘 믿고, 헌정·헌법·헌인 등을 모두 내려놓을 것 등의 원칙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전기총연합회는 또 법인임원직 구성 확대를 논의하고, 제2회 전국교회연합기도회 개최, 전기총연합 및 시군구·보수단체연합 출범식, 정치수도권·충북·영남권·전라권 사무국 설치, 기원지 등록 및 발행 등을 위원회에 위임해 추진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악법과 사회 이슈 등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인 뒤, 이에 대해 전기총연합의 입장을 정리해 표명할 것을 결의했다.

예배 이후에는 국민의원 대선 예비후보인 임희룡 집사(초청) 강담도 진행했다.



'내버려둔 사람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롬 1:19-32)



조용국 목사

내버려두고 놓아두지 않는 대상이 되는 것은 참된 한 일입니다. 특히 정경 파궤에 부도가 죽은지 부도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그러합니다. 개인이나 소수의 무리뿐 아니라 민족 전체가 이런 비극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이보다 더 참담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이 내버려둔 세 부류의 사람들에 관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 일생 동안 우상숭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사람은 관행하고 실행하여 이치를 알아내며 존재 이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이성을 통하여 사물을 원리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만이 아니라 감성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미쁨과 행할 바를 행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철학자로 알려진 칸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는 증거는 머리 위의 별들과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 것을 알 수 없는 이성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 괴로움을 신관하여 접하는 것은 최악의 비극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본성에 매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다고 남녀가 짝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살아가는 본성을 주셨습니다. 동성애는 성도행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이런 수순과 순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본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창조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정신적인 황폐와 육체적인 질병 등의 보증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은 동성애자들을 관용하여 여러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계속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기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셨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불로초 없었던 것이지만, 둘째 의미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두신 사람으로 지내어 사십니다. 둘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합당히 회개하도록 하시는 의의의 표징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딸자 비유에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 세월 동안 우상숭배를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본성에 매되는 행동을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고 제 마음대로 행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신 사람은 용서하여 주십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기쁘게 영접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며 모든 것을 잃은 것을 얻고 잃지 않게 배려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는 복음입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헛된 일에 세월과 가진 것들을 낭비한 것은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길로 내릴 바를 주시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제68차 총회 제29회 임원회

대면예배 재조정·차별금지법 저지

공산주의 용납 안돼... 코로나로 힘든 교회에 사랑과 온정을



신자영 목사
예수교총회장
새전선교회 담임

교단 총회(총회장 신자영 목사) 재조정 총회 재조정 임원회(제 68차 총회)가 지난 10월 29일(목) 오전 11시 다중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상으로 열린 다중영상회의에서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회장 신자영 목사의 인도로 신자영 목사의 개회기도와 찬송 후, 서기 장영진 목사의 대제기다. 총회장 신자영 목사의 설교, 각종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을 위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예배회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기도, 회계 한순간 목사의 마무리가 끝나, 부총회장 정영일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총회장 신자영 목사는 설교를 통해 "2년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정부 당국의 지나친 교회 공격으로 한국교회기 사대를 초월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무려 1만 개교가 사라졌다는 안타까운 보도를 접하면서 마음이 몹시 아파한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를 반드시 크게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교회를 회복하려는 사명을 갖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임원회는 총회장 신자영 목사 주례로 서기 장영진 목사의 회회점명, 의정 신자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신자영 목사)가 이어졌다. 총무 이경진 목사는 보고 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각종 총회 일정과 행사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임원회의 취지를 살피면서 총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2022년도 목회사업 대안(서무보고)가 지난 10월 28일(목) 오전 11시 총회에서 열려 목회사업 운영 등에 대한 사업부가 차장직 면담회 검토하여 여러 부속과자가 있는지 없었는지 살펴보고 목회사업 일정에 반영을 하였다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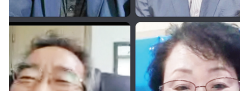
한편 2022년 목회사업 오미예배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조정되는 대로 일정을 정하여 통보하기로 했다.

이어 재무 한순간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감사신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으로 시정으로 교회기원, 교역자기원, 청년, 교역자전출, 청년, 교회주수전진 보고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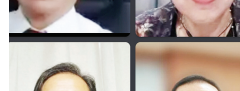
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회 대면예배 재조정과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 선출을 위해, 한미동맹관계 철저히 복원,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공산주의 타파 등을 위해 헌신하기로 하고,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는 (사)전기총연합 등 연립기관과 함께 강령에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신자영 목사(왼쪽)와 임원회에서의 기림 촬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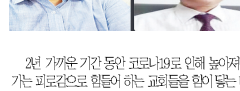
▲신자영 목사(왼쪽)와 임원회에서의 기림 촬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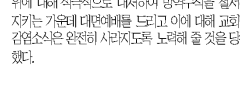
▲신자영 목사(왼쪽)와 임원회에서의 기림 촬영 중



▲신자영 목사(왼쪽)와 임원회에서의 기림 촬영 중



▲신자영 목사(왼쪽)와 임원회에서의 기림 촬영 중



▲신자영 목사(왼쪽)와 임원회에서의 기림 촬영 중

예배 간섭과 통제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원칙' 위반

예자연, "일반 다중시설과 '형평성' 고려해 동일한 기준 적용해야"

코로나19로 정부의 불공정한 한국교회 탄압에 목숨을 잃어갔던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신선대언회(예자연)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기간 동안 1만 개교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10월 3일, 공무원 7411명을 동원해 1640개 종교시설을 현장 조사한 결과 폐쇄된 교회가 16%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교회들만 1만 개교라고 했을 때 1만 개교가 폐쇄됐다는 것이다.

예자연은 "정부는 2주 방역연장 정책을 22일 동안 실시하면서 희망 고문만 찍었다"며 "그런데 실제 모든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것은 4%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교회는 1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20개 기준으로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예자연은 "정부의 예배 간섭과 통제는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며 "정부는 교회 시설에 대해 일반 다중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번 10조 '법정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요구하며 "법정의 원칙에 대해 개별 교회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한방의 개별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를 규탄하며 47기 요구사항으로 사법제 형식에서 찬양과 기도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라, 예배 형식은 각 교단 및 개별 교회마다 다르므로 제

한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자 억지 요구다.

△정부는 사회봉사와 이웃 돌봄을 위해 소그룹 활동을 제한하지 마라. 교회의 주요 기능은 우리 사회의 약자 이웃을 돌보며 이들을 살리는 일이다. △교회의 식당 운영은 일반 식당 운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 교회만을 대상으로 식사를 금하는 것은 행방에 맞지 않는 특혜의 발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라. 방역 협력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교회와 연대는 필수이며 교회는 그 사명을 다할 것 등을 밝혔다.

박정호 목사(예자연 실행위원장)는 "예배 자제로 한국교회가 초월했다. 정부가 형평성 없는 방역 정책을 교회를 무너뜨릴 공작책이 아니다. 정부는 더 이상 예배 형식과 인본에 대해 통제한 말고 이들을 교회 자제로 돌려보내라"고 말했다.

이와 "한국교회 대표기관이 예배 회복을 위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듣고 싶다"며 "내 교회가 부흥되고 기쁘게 있었던 안된다. 특별히 한국교회 대표기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바란다"고 했다.

손보현 목사(예자연 실행위원)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서 이제 1980년대 10월 신자영회를 결성한 총회가 다시 생각났다"며 "여러 방편을 다해 신자영회를 결한 내내 총회와 한미동맹의 주역이 전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소름이 끼쳤다"고 고백했다.

▲신자영 목사(왼쪽)와 임원회에서의 기림 촬영 중

새벽별교회 목사임직 감사예배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고현진 목사)는 지난 10월 10일(주일) 오후 4시 군산 새벽별교회(담임 고현진 목사) 위임출석에서 목사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임직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훈배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홍종학 목사(부안 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후 마 22:36-40 말씀을 본문으로 '주께 쓰임 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지방회장 고현진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고 목사는 먼저 목사임직 받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설교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 몸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음을 전하

목사임직 감사예배



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 귀히 쓰임 받는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부 목사안수식에서는 안수자 고동봉, 천소현에 대한 사약, 안수, 축의식, 공도 순으로 이어졌으며 새벽별교회 여전도회의

특송과 부회장 홍종학 목사의 권면, 증경회장 김중문 목사의 축사, 추사 임직자 고동봉 목사의 인사 및 기도, 지방회장 고현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 헌신할 것 다짐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10월 9일(토) 오전 11시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순복음세움교회에서 임직예배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유리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조은혜 목사(순복음빛남교회)의 대표기도, 서미경 목사(순복음진교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염36-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김중문 목사(순복음아미교회)의 헌당기도, 증경회장 임영철 목사(순복음화평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열매화에서는 재무 및 총무보고 등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회원들의 화

합과 단합을 위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지방회가 될 것을 다짐하며 각자 목양지도를 얻었다.

화평순복음교회 · 초심교회 목사임직 감사예배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김병목 목사)는 지난 10월 4일(토) 초심교회에서 화평순복음교회 담



임 장병목, 초심교회 담임 김희자 전도사의 목사임직 감사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꾼으로 더욱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1부 감사예배는 총무 안진자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증경회장 정문기 목사가 요

2:15-18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정 목사는 설교를 통해 '목회자는 첫째,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째, 목회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셋째, 끝까지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할 것'을 권면했다.

2부 목사임직식은 지방회장 김병목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안수위원 증경회장 엄기설 목사, 정문기 목사, 김병목 목사의 안수기도와 축복기도, 엄기설 목사, 정문기 목사의 기문작의, 지방회장 김병목 목사의 공포, 증서 및 안수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이미순 목사의 권면 및 축사와 엄기설 목사의 축도로 목사임직예배를 모두 마쳤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식사대신 담배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인천지방회

목회현장 어려움 나뉘... 자동차정비업체와 협약도

인천지방회 회장 정진균 목사와 임원들은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회원 교회들을 직접 방문하는 '특별 심방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인천 지방회 소속의 목회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려워지기 회원들의 소망이 줄어들고 지방회의 분위기가 침체되는 것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해남의 은혜로 심방의 결과는 너무 좋았다.

코로나19 이후 제대로 된 만남을 갖지 못했기에 회원들과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만으로도 불구하고 회원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전할 대회를 나누면서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지방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다.

심방 프로젝트의 결과는 골길 나타났다. 참석률이 변화가 생긴 것이다.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열매화 지방회 회원들 중 무려 90% 이상이 참석하겠다고 전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짧은 심방이지만 회원 목회자들의 한결 같은 고백이 어떻게 어려운 시기에 심방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힘이 된다. '소속감을 느낀다. 부족하지만 지방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이었다. 이번 심방 프로젝트를 통하여 가장 크게 얻은 수확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지방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다.

심방 프로젝트의 결과는 골길 나타났다. 참석률이 변화가 생긴 것이다.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열매화 지방회 회원들 중 무려 90% 이상이 참석하겠다고 전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특별 심방 프로젝트를 기획한 인천

지방회 회장 정진균 목사와 임원들은 '현재 코로나와 같은 힘든 시기가 장기화 지속된다면, 해남에서 말기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교본부(敎本部)'하고 있는 목회자와 회원 교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며 교회라는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 심방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지방회원들의 심방을 통하여 목회자의 몸부림과 회원교회들의 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목회현장의 여러 부분을 함께 나누며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코로나라는 거대한 현실의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인천지방회는 인천 사구 소재 대형 자동차정비업체와 협약을 통하여 차량수리, 차량검정, 무상점검 등 지방회 회원교회와 성도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MOU협약 또한 체결했다.

인천지방회를 시작으로 총회신한 모든 지방회가 주안에서 하나되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이룬다 공동체의 모습으로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단 고시위원회 목사고시 응시자 서류심사

2022년 목사고시 오리엔테이션은 방역기준 따라 일정 조정

교단 고시위원회(위원장 이석호 목사)는 지난 10월 28일(목) 오전 11시 총회 회의실에서 목사고시 응시자에 대한 서류심사 모임을 갖고 변별한 자격검사와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서기 김경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고시위원 이부근 목사의 대표기도, 고시위원장 이석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설교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때 일수록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하게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을 당부하고 위원들

을 축복했다. 끝으로 이어진 목사고시 응시생들에 대한 서류심사에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여나 부작각자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목사고시 일정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서류를 일부 보완토록 했다.

한편 2022년 목사고시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조정되는 대로 일정을 정하여 통보하기로 했다.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서기총, 정상예배 회복 위해 1인 시위 시작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의 '예배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원칙을 준행해 달라는 1인 시위가 지난 10월 18일(월) 서울특별시청과 정부서울청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시작됐다.

30여 교회에서 12명 자원봉사자가 오는 29일까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입장을 장기간 위해서다.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헌법 20조에 명시된 기본권을 일하는 사무로 서울특별교총연합회장 김병준, 이하 서기총을 주도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대표 김승규 정로 외 이와 유사한 단체도 동참했다.

서기총 회장 김병준 목사는 "한국교회가 1만개가 넘는 상황에서 150만 성도기 교회에 따라서는 사설에 기반을 둘 수 없었다"며 "제일 있는 교회의 침묵과, 책임 있는 교회가 이렇다하게 전파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재림이 더뎠다"고 말했다. 이어 "뜻이 맞는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해 한국교회의 신명을 대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18일 현 가리키기 단계를 2단계로 연장하면서 '중요시설은 4단계에서 종전처럼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로 제한되고 '최대 99명' 상한선은 최대 100명에서 200명으로 구성할 경우 수용 인원을 최대 200%까지 참석할 수 있다'는 발표로 대역자 1인 시위 상황은 18일 발표됐다.

이처럼은 '장부의 이런 교회무시 정책은 불공평의 상징이 됐다'며 '대표적으로 다중 이용시설인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피터볼, 전시장, 박물관, 인바스, PC방, 오락



실 등은 4단계에서 두 개로 줄이기만 하면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 '무엇보다 정부의 이러한 불공평한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한국교회 총연합 등 유관기관과 기독교 자선기관과 자부하는 지도자에게 유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대중이 아쉬웠던 표현이거나 아직도 대면에서 보다 시민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표현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교회에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

사태를 보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거리로 화가들을 하고자 하면 그때도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런데는 '이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하에 여야연에서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법적다툼을 넘어 정부가 계속적인 교회 질서를 방위정책을 도출이 한다면 스스로 국민의 신임을 자초하며, 정권교인 운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예배회 복을 바해달라는 것을 넘어 국민의 자유권 전반을 침해하는 독재국가로 가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1 전국 여교역자국



정석희 회장 조동목 목사
은혜교회



홍희경 신자영 목사
새길교회



고문정 목사
대림교회



자문정 목사
순복음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색교회

조직
임원
전국
지부
장



예혜부장
기쁨교회



선교부장
토목교회



복자부장
기쁨교회



봉사부장
기쁨교회



홍보부장
기쁨교회



재정부장
기쁨교회



행정부장
기쁨교회



기획부장
기쁨교회



행사부장
기쁨교회



친교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서울중앙지회 지부장
기쁨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202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신학교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한 세미나



※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이성규 박사
박사학위 취득
고신대학교 명예교수



김광인 목사
고신대학교
목회학부 교수



정기영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사장
부산신학교 학장



한명점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학장

일시

2021년 11월 2일(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세움교회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 356번길 47(전포동))
전화문의 051) 731-4202

주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신학교
이사장 정기영 목사 · 학장 한명점 목사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매일복합질

- 1 손성된 신제품조각구각중 염증을 다스림
- 2 만성피로 증상완제, 각종 암의 예방(위암)
- (2)고려대학교 교수님 암으로 세계특허

2)폴리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노화예방 및 중독예방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사폴린

- 1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세포를 붙여도 탁월)
- (전북대연구논문)
- 4 호르몬기, 위,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 5 사포닌 : 면역력 증가
- 6 갈락톤 : 홍화씨의 24배, 말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배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

7)식이섬유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호서대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0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 1)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연구를 통해 발표됨)
- 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위장, 위염에 효과적
-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 *유방종괴, 암 부위에 미늘처럼 천년초를 붙여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장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붕괴된 교회학교 재건 로드맵 제시

‘교육목회 엑스포22’ 11월 22일(월)~26일(금)



박승연 목사
총회장

위도코로나시데 2022년 교회학교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 교육목회 엑스포22 행사를 한 달 앞두고 지난 10월 22일(금) CCMM빌딩 12층 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세대부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사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사무총장 이동진 목사의 인도로 50여명의 찬양, 기악, 이창희 간담회장의 대회사, 엑스포22 준비위원장 박연호 목사의 주제해설, 아비전도협회 서형희 대표의 전도보고, 다음세대운동본부 공동회장 김성권 목사의 합신기도인도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대회장 간담회장은 “역사의 위대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교회를 살리는 일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회보다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한국교회 전체가 역량을 합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엑스포22는 젊은이들 심령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대하다.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으면 패자이다.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엑스포22 준비위원장 박연호 목사는 “엑스포22는 1호로 마치는 행사가 아니다. 6년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개척교회, 불모지 반향에 중점을 둔다는 교회는 어린이들이 찬양 찬양 72곡 양호, 성경구절 32절 양호, 성경적 세계관 형성 등으로 복음의 어린이 기도할 줄 아는 어린이, 구원의 확신이 증명한 어린이, 주님과 동행하는 어린이로 양육될 것”이라고 했다.

“교회학교, 복음으로 충헌합니다” (롬 1:16)라는 주제로 열리는 ‘교육목회 엑스포22’는 붕괴된 교회학교, 아동부 2022년도 세관을 새로 재건하도록 로드맵을 제시한다.

어린이들이 몰려오는 교회, 꿈같은 일들이 2022년



에 펼쳐질 수 있다는 비전으로 교육목회 엑스포22가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26일까지 5일간 동산교회에서 유무로 스트리밍으로 개최된다.

지난 6년간 5개 교단 7개 교단에서의 기적같은 사역의 열매를 얻어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박연호 목사가 다음세대부세우기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연호 목사는 간담회에서도 통찰, 함축, 고신, 백성, 기장 교단의 교회에서 교회학교 코칭 디렉터로 시작하며 1천여 명의 전도와 복음을 바탕으로 한 교회 학교 건축 운동을 펼쳐 왔다.

엑스포22의 커리큘럼 구성은 이렇다. 22일은 전단 회개, 23일은 찬양회복, 24일은 예배점심, 25일은 분반공부반 반목회와 마지막 날인 26일은 2022년도 회복의 전략을 상세히 제시하고 사례를 발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022년을 대비해 하는 것이다.

엑스포22의 기장 큰 감동은 아비전과 같다. 하나님은 교회학교를 완전히 개척하여 복음 위에 재건하는 운동이다. 돌, 과목과 강사 선정을 실무 위주로 구성했다. 옛 강의, 사례발표, 설교로 인해 받는 구조를 띠고 있다. 옛 영상강의와 교재들간 홈페이지 자료 제공으로 삼박자를 갖추었다. 다섯 6년 장기적 목표

표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한다.

초등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교회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반대로 난 대한민국 교회학교 앞에 있는 2022년을 이미 복제 부활이었던 기존의 시스템을 성경적 교회학교로 재건할 수 있다.

말씀을 보면 나무를 안다고 연 교회학교는 6년을 다녔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기도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아이가 대부분이지 않나. 수업을 못하고 한자를 살리지 못하는 병원은 이미 그 능력을 상실한 것이 교회학교가 그랬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어린이들이 구름 때문에 문 닫은 성사를 이룬다 해도 그 어린이들을 예수님으로 품을 준비가 안 된 교회라 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바닷으로 떨어질 것도 없다. 또 하나의 (학교)는 이미지와 기능에서 벗어나 (교회) 속의 (교회)로 재건해야 영혼구원과 재지로의 양쪽으로 열매를 맺는다. 아비전 이렇게 가야 한다.

대담 어린이는 다 따랐다. 남작자 아들을 알라로 시작자. 2022년도 내일을 먼저 가야 한다. 60분의 시간 공부, 성경에서 임하시도록 바꿀 건 더 비무자, 그 교회이다. 참여번호 02-815-5211

신간 안내

전신갑주



본서는 에베소서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다. 많은 사람이 암송하고 그릇으로 고쳐지는 에베소서 6장에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 영적 전투를 위한 무장들이 언급된다. 하지만 각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그러한 영적 싸움의 도구를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신구약의 관통하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전신갑주를 하나님과 붙어싸우며 우리로 그리스도의 완성된 승리와 전투를 위한 힘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확신 속에 안식하며 매일 그 강함을 입도록 초대한다.

저자/역자: 0번 두드림/아나 | 출판사: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2021-09-30 | (130*200)mm 176p | 판매가: 11,000원

지금, 다시, 중보기도



신앙생활에는 늘 영적 전쟁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성도의 영적전쟁이나 각별한 전성도 있을 것이다. 이진용 목사는 그 격렬한 영적 전쟁의 현상에서 ‘공동체’로 드리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보았다. 이후 성가들은 찬양과 양의 사자들을 가까이 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계속 경험하게 했고, ‘중보기도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었다. 이 책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마음이 충만한 중보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환호는 자기가 우리의 공동체들이 모두 중보기도하는 공동체로 사기를 회복하며 자신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중보기도 훈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과 장점이 많은 이들을 위해 각 영역에 대한 중보기도문을 담았다.

저자: 이진용 | 출판사: 규장

발행일: 2021-10-25 | (145*210)mm 232p | 판매가: 13,000원

기독교와 법



믿음으로 해석하는 세상, 세상으로 주석하는 믿음, 신앙과 법률의 연결점을 목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서 이루어지는 일은 세상에서 사람을 받아 감동하고 나아가서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상의 사람을 잘 받아 내면, 세상의 변질하고 가진 현실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에 맞서 대항할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원리도 알 수 있다. 나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시험해 빠뜨리면, 하나님의 원리의 강령을 알고 세상의 악행과 법으로 함께 싸우게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세상의 운동 원리와 그 강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완한 제도를 파악할 수 있고, 하나님 원리의 강력한 힘을 세상의 구체적인 현실을 통해서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

저자: 이진용 | 출판사: 도서출판 대경

발행일: 2021-10-20 | (135*200)mm 224p | 판매가: 15,000원

너의 길을 멈추지 마라



“네가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의 의지하지 마라.” 이 책은 개교회 목회자는 절대 하지 않겠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미국에서 개교회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지하며 교회를 세우는 자의 치열한 발무늬가 고조되어 담겨 있다. 송길영이 자신의 연원과 심해를 드러내는 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역시 교회는 그날 새우지만 성도들이 사랑과 기도로 교회를 가꾸어야 교회는 새겨진다. 오직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가꾸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교회를 세우신다. 그 기적 안에서 믿음 나누어서 자는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 포탄이 있다.

저자: 김기현 | 출판사: CLC(한국교회서신교회)

발행일: 2021-11-05 | (144*215)mm 240p | 판매가: 10,000원

한기부 ‘제53차 정기총회’ 주요 임원진 구성

한기부 정영균 신임 대표회장 추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부)는 지난 10월 25일(월) 원당신앙교회(한남동)에서 ‘제5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정영균 목사를 만일임지 추대했다.

정영균 대표회장은 “한기부로 인해서 오늘날의 내게 존재할 수 있었다. 총대대표회장으로서 사명으로 성령에 왔으니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잘 살아가겠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무너져 있어 이 시대에 민족을 깨우며 한기부의 전통을 살려 영적 계승 운동을 진행하겠다. 한국교회의 영성을 이끌어 가는 한기부가 되도록 한 할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전 대표회장 변광호 목사는 “하루 일을 계획했지만 우환 때때로 바이러스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것이 많아 아쉽다”면서 “정영균 대표회장이 시대적 책임을 들고 사역에 귀한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총회에는 한기부 소속 1인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에 위기가 처했다’는 성도들이 많이 줄어 100명 이하 교회 중 많은 수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 외에도 불거지고 한기부는 잘 버텨왔다고 해서 “한기부가 제3차 위기 때 더욱 힘을 내 우리 나라에 성령의 불을 던지자”고 당부하며 크게 쓰인 반갑다. 이날도 80대 대표회장을 잘 보냈다고. 오늘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아신대, 제43회 ACTS 선교대회

“열방을 향한 주의 뜻을 이루소서!”

복음주의 신학과 세계 선교로 국제에 널리 알려진 아신대학교(ACTS) 총장 정종환(제43회 ACTS 선교대회)이 온라인으로 10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열방을 향한 주의 뜻이 루스다”이다.

아신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선교대회를 축소하거나 일정 중단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열려 러며 확대했다. 이번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의 일정이었던 선교대회를 열흘에는 5일로 늘렸다.

10월 28일(목)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선교헌신 예배에서 전 세계를 위한 기도회로써 현재 선교 헌신 헌트로 세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위한 계시록 7:9-12 말씀을 본문으로 섬겼다.

10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2시 50분, 3시-4시 30분, 4시 30분-5시 50분에는 각 시간마다 4-7개 국/국/대에 대한 선교 세마나기 동이 열려 참가자들은 각 국가의 선교 상황과 필요들을 접할 수 있었다.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Zoom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세계를 품는 기도회”를 통해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매일 대륙과 국가를 나누어 선포하며 기도했다.

이번 선교대회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니라, 현장 선교사들의 참여가 많다. 현재 약 100여 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신대 동부 선교사들이 기도회와 세마나기를 이끌어 오고 있는 참가자들은 생생한 선교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을 위해 아신대학교는 ACTS 출신 선교사역자



모임인 아신대학교 태동교회 사역자(ACTA)와 기밀하게 열렸다.

ACTS 선교대회는 아신대의 기교 직후인 1978년에 ‘비서복음화’와 ‘전진교회’에서 ‘아시아 선교를 위한 하기로’한 결의에 따라 같은 해 열린 ‘아시아 선교의 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ACTS와 함께 선교현장을 이해하고 복음화의 사명을 사역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진-정호-기환, 3대째 목회자 배출

예향동동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아들 목사안수 받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서대원노회(노회장 임정목 목사)는 지난 10월 11일(일) 오후 4시 대전 새로남교회(임정목 목사)에서 제13회 정기노회를 갖고 목사 성립 및 강도사 인가 강제에 불렀다. 이날 목사안수를 받은 오기환 목사는 오정호 목사의 아들로 3대(오상진-오정호-오기환)가 목회자가 됐다.

임정목 노회장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강지철 목사(부노회장)의 기도, 이광우 목사(의복)의 기도의 성경봉독, 김만중 목사(서진 노회장)의 막 10:46-52 말씀을 본문으로 진행했다. 합동노회는 제4회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만중 목사는 설교에서 “이 세대



는 간증을 가지고 읽으면 목회를 할 수 있으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계단식 예배는 오기환-김만중-박정영 목사(새로남교회) 장로사 소개, 서대원 목사안수 약속, 최의식 목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김만중 목사(서대원)가 이기환(서대원제일교회)·김민재(의성교회) 강도사 인가사 소개, 사역과 인가기도, 공회, 합동총회 서교부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정호 목사는 권역을 통해 목회자가 된 아들이 개척자의 사명을 계승하게 된다고 했다. 오 목사는 “현

대이 메시야를 직각하고 마지막에 SDG 세를 주를 썼는데 Sui Das Gloria의 약자였다. 목사가 된 세마니 평생을 살아가는 방자취기 SDG 개척자의 사명을 계승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길 바란다”면서 “주와 나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다하지 않나”를 굳게 믿고 나가야 한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대만을 갔으니 믿음으로 함께해 전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호 목사(중경노회장)와 김성호 목사(중경노회장)가 목사를 했다. 노회장이 장로사 수여한 후 3대째 목사인 오기환 목사(새로남교회 부목사)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찾아가는 뷰티서비스, 대체식 전달

사해동은 마을 새월드뷰티헨즈 마포구 NGO 자원봉사 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구청장 최창환) "2021 마포구 NGO 자원봉사 사업" 후원과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새월드뷰티헨즈(회장 최아스틴) 신년대교수주최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움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독거어르신에게 "마포구 찾아가는 뷰티서비스"와 생활지원을 위해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취약계층과 독거어르신께 뷰티서비스와 함께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순서도 있었다.

이번 행사는 (사)월드뷰티헨즈 회장 최아스틴 교수(신한대학교 뷰티학과 교수)가 진행한 이차진, 홍광진 등은 장미향 시무종중이 선했다. (사)월드뷰티헨즈는 법인종중이 후원하여 매년 가을을 통해 뷰티서비스는 물론 생활기전과 생활품 등 소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으며, 매년 마포구 NGO 자원봉사 박람회(전서)와 함께 나눔의 손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있다.

(사)월드뷰티헨즈는 2019년 1월에 창립되어 광주지회, 경북지회를 비롯한 전국지회를 중심으로 노숙자와 취약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 불편의 노인에게 어려운 이웃을 비롯하여 한 부모 다문화 가족 뷰티서비스 실시와, 청소년뷰티교육을 통한 찾아가는 뷰티서비스와 복합동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뷰티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월드뷰티헨즈는 K-뷰티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의 전문 교수와 뷰티기 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 인종기전으로 뷰티지원봉사자 신청을 받아 봉사하고 있다.



아신대, 부지 관련 소송에서 승소

아신대학교(ACS)는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법원 아신대학교(ACS) 대 아신대(아신대) 19년 1월 10일)의 재판 결과 부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소한 재판(법원 부지 관련해서 ○○건축은 2012년 7월 초 부동산거래법(부동산거래법) 하였고, 판이 7월 9일에는 ○○회사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열며 아신대와 재판(법원)을 비롯하여 왔다.

그러나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건축이 재판(법원)의 회의를 발의한 것을 주조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합법적인 이사회 결의가 없이 진행된 부동산거래계약은 공익법익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 ○ 건축의 주장이 하위로 밝혀지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법원)을 운영하여 왔다는 이청호 아신대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게 되었으며 재판(법원)이 아신대와 함께 도야의 법원을 비롯한 것으로 전향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소복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날마다 주님바라보고 나아가는 길

다시 오실 주님 믿고 기다리는 영적생활을 갖고 오 날도 주님을 바라본다. 얼마 전 생명의 책(수술과 목 디스크 수술로 병원에 2년 6개월이나 입원한 하 나신의 도우심으로 많은 간격을 받을 수 있었다. 큰 도움이 되었지만 주님 은혜로 살아나 일어나 감사한지 모른다. 무엇보다 구원받고 천국 보장 받는 삶이기에 더욱 더 감사하다.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사함해 해를 지 누구인 가? 코로나19에 전에는 주님 주시는 돈에서 소금과 의 집에도 없고 한자를 치료하고 많은 분들을 끌어다 갔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인적이 드물어서 조용하지만 기도소리는 늘 끊이지 않는다.

새벽과 저녁에 늘 예배드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

"오직 생명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관을 받고 영생을 받고 온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증인인 삶으로 본토에도 복음 들고 가요리다. 지금껏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이 길(가)에 오 날도 늘 뿌려 갔다. 그러나 중 기복세로 전도 박영수 목사 통해 여성기를 얻을 수 있었다.

하루를 기다릴 수 있다. 해를 지 누구인 가? 코로나19에 전에는 주님 주시는 돈에서 소금과 의 집에도 없고 한자를 치료하고 많은 분들을 끌어다 갔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인적이 드물어서 조용하지만 기도소리는 늘 끊이지 않는다.

이제 우리도 전도지역을 함께해 나가기다. 더욱이 이들과 기도도 동산, 믿음의 동산, 믿음의 동산, 전도의 동산이 되리라고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

논산 인복수양관 박영수 원장

동명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4691, 010.930-2573 평내소복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국내 최초 생명나눔 점자책 배포

SK,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함께

SK증권(대표 김상)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지현)는 지난 10월 15일(금), 한지평의 날을 맞아 국내 최초로 전국평화교육 재학 중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및 나눔 교육을 실시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나눔 및 나눔 교육을 실시해 이제까지 1만 2천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한 가치와 나눔의 필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해당 교육에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SK증권의 후원으로 점자 교재와 오디오북이 탄생했다. 한지평재단(대표 최영환)에 따르면 지난해 출판된 책 중 점자책 비율은 0.2%에 불과했다. 특히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점자책은 제작하는 비용과 시간이 일반도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작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교육 교재 제작을 통해 이제까지 점자 및 음성 교재가 부재해 생명나눔 및 나눔 교육을 받지 못했던 전



국 28명의 시각장애 초등학생들에게 재학 없이 해당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생명나눔 및 나눔 교육 교재는 시각장애를 가진 어린이들도 비장애인 어린이들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점자와 음성으로 제작된 교육 교재는 세계시각장애인연맹(World Blind Union)이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를 이끌어 내자는 취지에서 선정한 15일 한지평의 날에 전국 13곳 명 학교 300여명의 학생과 담당 교사 및 30곳의 점자도서관에 배포된다.

교육 교재에는 점자책의 과정은 점자의 역할로 표현한 그림과 실제 점자를 기록하고, 이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으며,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의 위치와 역할 등과 같은 과학적 정보와 함께 소중한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한 생활습관 등이 담겼다. 또한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살아있면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의 종류를 배우고, 기부를 위한 준비의 한 방법으로 SK증권 구상원이 제작한 점자책의 내용과 더불어 금융(가)도 첨부되어 있다. 교재의 마지막에는 자신과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글과 함께, 이번 교육 교재는 세계시각장애인연맹(World Blind Union)이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기아대책,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한 캠페인

“멈출 때 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 생명을 살리기 위한 스탑(STOP) 외친다”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대표 최영환)은 지난 10월 15일(금)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코로나19와 기후 변화 등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빈곤 아동 및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2021 스탑기아(Stop Hunger) 캠페인'을 진행했다.

'스톱기아' 캠페인은 전 세계 빈곤 문제를 국내에 알리고, 위기에 처한 각 국가에 식량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아대책의

로봇기아 퇴치 모금 캠페인이다.

지난해 전 세계 기아 인구는 8200만 명에 달했다. 3년 만에 8억 1천만 명(세계인구의 11%)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8200만 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전 세계 기아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빈곤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기아대책은 현재 국가별, 지역별 발생 중인 기아

의 원인을 ▲전쟁 ▲내전 ▲병해 ▲기후변화 ▲코로나19 세 가지 요소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기아대책은 기아 퇴치를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실시한다. 오랜 내전 이후 회복 중인 경제성장과 농업 생산량 감소 및 식량난으로 인한 문제를 겪는 우간다의 나일강과 카라리 지역 주민을 위해 채소 재배 지원 및 채소 활용 요리 레시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연염료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할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vber.com

상담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가짜인권, 가짜평등, 가짜평화를 반대하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한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의 70년의 세월은 가시밭에서 파란 한 뼘기 백합화와 같은 기적이었다. 모진 시련 속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으나 산업화와 민주화, 압축 성장과 동시에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세계의 이름이 집중되는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권력과 산업화 과정에서 어두운 그늘이 있었으며 이들의 희생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제주 도민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은 해방 이후 지난날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밑거름이 되어 주신 선조들과 도움을 준 우방국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바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진정한 평화로운 나라, 더 나아가 복음 중 일을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다 음 -

1.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교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가 되기를 촉구한다.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고난받는 민족과 함께 땅을 메고 나라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호사다사(好事多端)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한편으로 이념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결과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게 된다. 이에 제주에 있는 애국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책임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에 있으며, 따라서 교회의 정체성과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되어야 한다. 고 뜻을 모았다.

2. 현 정부는 이념정에서 벗어나 나라를 살리는 정부가 되기를 촉구한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보수 정권을 적체로 규정하여 전직 대통령들과 전직 관료들을 대거 구속하였고, 정의와 평등과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더 헌법을 파괴하고 있고 기뢰와 과잉이라는 결과를 보면 판피적으로 오로지 전 정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다. 기뢰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집행하도록 하며 국민을 위한 선정을 베풀기를 바라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3. 북한의 2500만 동포의 인권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촉구한다.

현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과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의 폭력성이 개선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화를 위하여 보안법철폐, 평화선언,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북한의 3대 세습정권과 북한의 2500만 동포는 구분이 되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무조건 대화를 하기 위하여 국경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핵을 폐기하고 2500만 동포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게 보안법철폐, 평화선언,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

4.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고 성 평등한 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멈추어야 한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을 가졌던 인권을 가졌던 평화와 평등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끌고 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 개념이 삭제된 변칙적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상임위에서 심리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건강가정'을 포함하여 가정이란 단어를 모두 삭제하거나 무리하게 가족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행 법률의 가족의 정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동성커플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유법적 가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가정을 해체하고 비정상적인 가족을 만들겠다는 아주 나쁜 개정안이다.

그리고 이상헌 의원의 발의한 평등법의 주요 문제는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제정 등 반대로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인 남성과 여성이와의 제의 성을 인정하므로 개인의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고 건강사회를 혼란케 하는 매우 나쁜 법이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한 일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부정하는 젠더평등 성 정체성, 성적 지향성을 추구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 왔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야 한다.

5. 최근에 이르러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교회가 침체되고,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걱정되는 큰 고통의 부르짖음이 들려오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수호에 대한 각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헌법 가치를 모호한 쪽으로 변형시키려는 음모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시작된 체제전쟁 중에도 있다. 권력의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법치가 무너졌다. 오늘날의 현실은 가짜인권, 가짜평등, 가짜평화와 편견된 민주주의로 포장된 잘못된 진보이념이 국민을 속이고 인본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로 변형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제주의 교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은 결과 행위를 바르게 하므로 존경받는 진정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길, 현 정부에 대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정부가 회복됨으로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기를 천명한다.

2021년 9월 30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제주 기독교 교회지도자 세미나 참석자 일동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 임원

회 장	류승남 목사 (신촌교회/통합)
부 회 장	강성조 목사 (제주동안교회/교신)
	이상구 목사 (총일교회/가림)
	강두성 목사 (유미교회/통합)
	박병해 목사 (제주중앙교회/합동)
총 무	최병준 목사 (수신교회/가림)
부 총 무	김건수 목사 (제주한미교회/예하성)
서 기	김용범 목사 (제주주님의교회/합신)
부 서 기	이순구 목사 (제주안대교회/가림)
회 록 서 기	최창환 목사 (청수교회/가림)
회 록 부 서 기	김경태 목사 (제주동신교회/합동)
회 계	김태영 장로 (제주성신교회/통합)
회 회 계	최하성 장로 (제주제일교회/가림)
감 사	현성길 목사 (제주서광교회/교신)
	노천환 목사 (제주열린교회/대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산하 지방신 학교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정 목사)

에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에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leman@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에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 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에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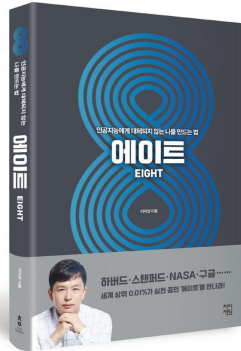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120쇄 돌파! 화제의 종합 베스트셀러! 당신이 알아야 할 인공지능 시대



이저성 저 | 값 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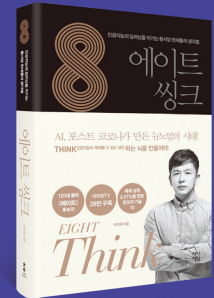
하버드, 스탠퍼드, NASA, 구글...
세계 상위 0.01%가 실천 중인 '에이트'를 만나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모두를 위한 책

에이트 EIGHT



에이트 실천편

인공지능을 이기는
'씽크'의 힘!



에이트 씽크

문의전화 02-334-7932

사이
정원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2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여학생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유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2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전차 한교과 세계의 교회에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인성.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부: 수시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수: 수시
-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3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발급) 1부
- 기독교관계증명서(종교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여 교단 목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